

‘경선=본선’ 민주당 컷오프 앞두고 비방전 과열

광주·전남 예비후보·캠프 관계자들 진흙탕 싸움 흔탁 극심
허위사실 공표에 수사의뢰까지...전국 표심에 악영향 우려

4·10 총선 전 후보 컷오프(경선 배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예비후보자들 간 고소·비방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지역 특성상 ‘경선은 곧 당선’인 만큼 경선을 코앞에 두고 예비후보들 간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선 이후 민주당 승리를 위한 ‘원팀’이 가능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원팀’은 선거기간 중 수도권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백중세를 보이는 선거구의 총선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의 경선 과열 양상은 ‘민주당 원팀’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후보 적합도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장실사, 공관위 면접 등이 진행된 후 다음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컷오프를 통해 경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후보 경선(2월15일부터)을 벌여 광주·전남지역은 늦으면 2월 말에 민주당 후보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각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은 서로 날 선 설전과 비방전을 벌이거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다.

광주 광산갑 박관택 예비후보 측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용원 의원 선거캠프가 ‘검사는 이제 그만, 시민의 나라로’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예의 있게 정정당당하게 하자”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검사 출신인 박 예비후보를 ‘검사 독재 구성원’으로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최근 김회재(여수) 의원과 김 의원 측근, 이용주 예비후보 관계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 의원은 “김 의원 특보와 이 예비후보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악질적 가짜 뉴스’라고 밝힌, 이른바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심지어 SNS

계정에 게시해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측이 언급한 명단에는 주 의원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를 조계원 예비후보는 법원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과 관련, 당시 차장 검사였던 김회재 의원을 겨냥해 “김 의원은 당시 1심 판결(무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며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보아,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상당한 관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근거 없는 설전도 이어졌다.

나주·화순 손금주 예비후보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당이 신정훈 의원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신 의원이 후보 검증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누양으로 말했으며, 이에 신 의원 측이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지난 18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동남을 이병훈 의원은 최근 경쟁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 방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면 타지역 거주자가 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내부 진흙탕 싸움이 심화하면 광주·전남 표심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을 박빙 열세로 보는 등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내부 단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원팀 정신’ 실종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참패를 경험해 놓고도 총선을 앞두고 ‘집안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평가 관계자는 “네거티브 선거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경선이 중요한 광주·전남 선거판의 특성상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과열 양상에도 넘는 비방전을 일삼는다면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미지수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폭설이 만든 ‘겨울왕국’ 최대 적설량 44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린 백두대간 대관령에 21일 눈꽃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몰려 겨울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에는 0.5mm 안팎의 비가 내렸으며, 오는 23일까지 5~15cm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아침 영하 5도 ‘동장군’ 다시 온다

강력 한파에 서해안 눈...“기온 급강하에 감기 조심”

일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20일)을 지나자마자 광주·전남지역에 ‘동장군(冬將軍)’이 다시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15도까지 올랐지만, 이번 주에는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져 최근 기승을 부리는 독감과 감기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전문가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하고 있다.

광주전남기상청은 “21일부터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2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22일 기온은 전날보다 7~10도가량 낮아졌고, 특히 23일 아침기온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22~23일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는 곳이 많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영하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3~0도에 분포하고, 23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9~영하4도이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4~0도를 보이겠다.

이번 한파는 26일께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구름대가 유입됨에 따라 24일까지 눈·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새벽까지는 광주·전남에 비(5mm미만) 또는 눈(1~5cm)이 내리겠다.

22일 오전부터 23일까지 광주와 전남서부에는 5~15cm(비가 오는 경우 5~20mm)의 눈이 오고, 전남 동부지역에는 1~3cm(5mm미만)의 눈이 쌓이겠다.

한편 21일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22일 새벽과 오전에는 전남 17곳에 강풍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져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시, 안일한 행정으로 세금 수천만원 날려 ▶6번
한국, 요르단과 무승부...16강 확정 못했다 ▶18번
팔도 건축기행 - 제주 동양극장 ▶22번

200만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
의사부족
해소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지역공공
의료사령탑
역할 수행